



5면 청년거점공간 '청년이음전주' 개소

# 전주매일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음 8월 6일) 제30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청, 그리고 재경전북도민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촌유학 활성화 지역·학교 살린다

### 도·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재경전북도민회, 협약 체결

내달부터 서울 학생 대상 전북 농촌유학사업 시범 운영  
완주·진안·임실·순창 등 초교 6곳 협력학교로 참여

서거석 교육감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청, 그리고 재경전북도민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도시와 농촌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것으로, 전북도 농촌유학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관영 전북도지사, 재경전북도민회 장기철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서울 학생을 대상으로 전북도 농촌유학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오는 9월 2일까

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라북도 농촌유학 추진모델'은 교육청과 지자체와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먼저, 전북도교육청은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모집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오는 학교, 교육을 통한 귀촌'을 슬로건으로 아토피 치유를 위한 특화 학교에서는 맞춤형 식단 제공, 숲 교육 특화 학교에서는 계절마다 숲과 함께 지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심리안정,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등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학교로 참여한다. 다음으로, 전북도는 서울 학생의 유치를 통한 전국 농촌유학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북만의 특화된 가족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한다. 아토피 안심학교(진안 조립초등학교)

교)와 아토피 치유마을(진안군 정천면)을 지정, 아토피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에 최적의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텃밭가꾸기와, 안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를 비롯한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또한 농촌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학생 제도 등도 확대한다. 세번째로, 재경전북도민회는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과 인연이 가진 사람들 전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연결체 역할을 하면서 도시 기증 마을 교육 협력 등 도시의 손주들이 전라북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을 제

2고향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농촌유학 전국화, 테마가 있는 농촌유학 등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전 세계에서 우수교육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며 "농촌유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 대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농촌유학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며 "지역과 도시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역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빛나라 전라예술 신나라 도민체전'

전라예술제, 오늘 남원서 개막

도내 예총 10개 협회 등 참가  
홍상수 '소설가의 영화' 상영  
지역예총 작품공연 등 준비

전북도내 예술인들의 큰 잔치 제61회 전라예술제가 1~4일 남원시광안장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소재호)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남원시가 후원하는 예술제는 제59회 전북도민체전 기간에 열려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술인들의 종합예술축제로 예총 도내 10개 협회 및 13개 시군 협회별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창작품을 도민에게 선보인다. 전북예술문화의 수준과 깊이를 평가하고 비교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창작 의욕을 북돋우며 전북문화예술의 품격을 한 단계 상승하는 축제다. 2022 전라예술제는 다시 뛰는 전북예술을 지향하며 '빛나라 전라 예술 신나라 도민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에 지친 도민과 예술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악, 무용, 연극, 연

예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매일 오후 2시와 밤 7시 30분에 열리고 4개 협회(건축, 문인, 미술, 사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야외전시장에서 작품전시회와 예술체험장을 운영한다. 특히, 영화인협회는 첫째 날 2022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를 4시부터 상영한다. 이 밖에도 전북 13개 시군 예총이 합동으로 펼치는 지역예총 대표작품공연과 남원예총회원들이 펼치는 특별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소재호 전북예총회장은 "15년이라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술문화의 수준과 깊이를 대표하는 축제로 순수문화예술행사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희망이다"며, "이번 도민체전기간에 깊고 그윽한 예술의 향을 피워 함께 공유하는 예술, 신명나고 행복한 예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5년 만에 남원에서 열리는 전북인의 축제인 제59회 전북도민체전대회와 제61회 전라예술제가 도민 모두에게 치유와 화합의 한마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 쌀값 하락 대응... 도, 농수산물발전기금 지원 확대

벼 수매자금 50억원까지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최근 쌀값이 하락에 따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등이 울 수확기에 원활하게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수매자금은 쌀값 등이 5년 평균 가격대비 20% 이상 떨어졌을 때 50억원까지 용자 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지침은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이 최근 3년 동기 3개월 평균 가격 대비 10%이상 하락했을 경우 20~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벼 수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등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44 44 44 44  
그리고 반딧불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022. 8. 27.토 - 9. 4.일  
muu  
축제 문의 063-324-2440  
www.firefly.or.kr